

현진에버빌



현진에버빌은 1999년 창립 이래로 '앞선 기술로 다음 세상까지 계속될 주거공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고품격 아파트 '에버빌'을 공급해오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주거공간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현진에버빌은 지난 2003년에는 정부가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2007년에는 노동부로부터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현진에버빌은 항상 고객만족과 고객가치 최우선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노력한 결과 소비자가 뽑은 신뢰기업대상에서 3년 연속 1위(2005-2007), 살기좋은 아파트 선별대회 2년연속 우수상(2006,2007)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 건교부 후원의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선호도와 인지도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여 건설업계의 모범이 되었다.

미래지향적 건설문화 보여줄 것

현진에버빌은 건설광고가 흔하지 않았던 2000년 초부터 중후한 느낌의 노주현을 모델로 기용하여 '남편을 바꾸는 아파트'라는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호텔같은 아파트', '파티가 어울리는 아파트'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매체 광고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에버빌이 당신을 표현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TV광고를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품격 아파트의 브랜드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온 현진에버빌은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발판 삼아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설 문화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건설회사의 이미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개발의 역사를 다시 쓰는 'Global Leading Company'로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히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333**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방송과 같은 디지털 정보를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여 디지털 생활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전세계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의 20.1%(디스플레이서치, 2007년 연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TV나 모니터 5대 중 1대는 LG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고객기반 강화, 고객밀착 서비스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생산시설, LCD 관련 특허 최대 보유의 기술력, 그리고 우수한 인재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1998년 11월 TFT-LCD 사업을 시작한 기업으로서, 2003년 현재 경상북도 구미(6개) 및 파주(1개)에서 총 7개의 패널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 경기도 파주, 중국 난징 및 쑹저우, 그리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모듈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에 각각 위치한 6개의 해외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주요 TV 및 PC 메이커, 가전 메이커 등을 주 고객으로 안정적인 판매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노트북 PC 부분에서는 Premium 제품(고수익 제품)의 판매를 늘려가고 있고, Monitor 부분에서도 대형 하이엔드(High-end) 제품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사이즈 LCD TV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또한 Application 부분에서도 탄탄한 고객을 기반으로 Mobile Phone, Car Navigation, 항공, 의료 부문 등으로 진출 시장을 다양화하고 있다.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할 것

부명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한미 증시 동시 상장을 훌륭하게 성공시킴으로써 특히 해외 시장의 자본 조달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 BSC(Balanced Scorecard, 경영성과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업적으로 'BSC 경영관리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초 사명을 LG필립스LCD에서 현재의 LG디스플레이로 변경하였으며, OLED 사업의 본격 준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가속화, LED 백라이트 LCD 시장 주도 등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고하게 구축함은 물론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333**